

# 大巡思想의 信條에 관한 이해

-성·경·신을 중심으로-

金正泰\*

## 目次

- |                |                    |
|----------------|--------------------|
| I. 머리말         |                    |
| II. 誠에 관한 理解   | 2. 敬과 天·地·人 三界의 關係 |
| 1. 天道·天理의      | 3. 恭敬의 對象으로서 上帝    |
| 根源으로서의 誠       | IV. 信에 관한 理解       |
| 2. 神人感應의       | 1. 信의 概念           |
| 媒介로 나타나는 誠     | 2. 信의 特性           |
| III. 敬에 관한 理解  | V. 성·경·신에 관한 이해    |
| 1. 修道의 要諦로서의 敬 | VI. 맺음말            |

## I. 머리말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신조(信條)는 수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 나누어지며, 그 중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성·경·신(誠敬信)은 삼요체에 해당된다.

사강령과 삼요체는 그 성격과 특성이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강령이 수도의 궁극적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삼요체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자는 매우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면서 수행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그간 삼요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논의하였던 바 이 장에서는 그것의 정리

\* 前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와 함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삼요체가 지니는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것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신조(信條)는 신앙개조(信仰簡條)의 준말로 교의(教義)·교헌(敎憲)·교규(敎規)·교범(敎範) 등의 말로 표시되는 모든 종교의 교리의 요체(要諦)를 가리킨다. 좁은 뜻으로는 특히, 그리스도교의 용어로, 가톨릭교회에서는 신경(信經)이라고 한다. 성서가 제1차적인 신앙규준인데 비하여 신조는 제2차적인 규준이 된다.

신조를 뜻하는 말에는 크리드(creed)와 심벌(symbol)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신조를 뜻하는 크리드는 가장 오래된 의미이며, 현대교회의 공통적 신조인 사도신경(使徒信經) 첫머리에 나오는 라틴어 크레도(credo:우리는 믿는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심벌은 '결합시키다' 라는 그리스어에서 전화(轉化)한 말이다.

이에 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① 사도신경이 12사도의 한 구절씩의 고백이 '결합' 되어 이루어졌다는 해석으로, 이는 역사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② 신조가 성서 속에 산재해 있는 교리를 하나의 간명한 문장으로 '결합시키어' 정리한 것이라는 해석인데, 성서의 교리를 간명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면 신앙문답(카테키즘)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것 또한 신조의 개념해석으로는 약하다. ③ 신조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기치라는 해석인데, 이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따라서 신조는 다른 입장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전투적인 성격을 갖는다. 신조는 사도신경을 출발로 교회의 발전과 함께 여러 개 만들어졌으나, 공동적 신조로서 대체로 보편적인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 즉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와 '케돈 신조'이며, 여기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가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신조는 종교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면서 2차적 경전으로 대변될 만큼 수행과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수행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대순진리적 특성에 기초할 때 신조에 대한 이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된다.

## II. 誠에 대한 이해

### 1. 천도(天道) · 천리(天理)의 근원으로서의 성(誠)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성(誠)은 인간과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지배원리이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성(誠)은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일관(一貫)하는 근원적인 원리와 법칙으로서 그것은 자연적인 존재법칙이자, 자율적인 당연법칙으로써 주체적(主體的)인 인간법칙으로 작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도(天道)가 무단(無斷)하면서 불식(不息)하고,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자연 법칙이 일호(一毫)의 차차도 없이 운행되는 배후에는 성(誠)이 자재(自在)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성(誠) 자체는 하늘의 도요, 성(誠)하고자 함은 사람의 도이니 지극한 정성으로 바르게 도뉘기를 힘써야 한다.<sup>1)</sup>

이처럼 성(誠)은 천도(天道)와 천리(天理)로써 만물을 질서에 맞추어 다스리는 근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典經』에서는 그것을 대경대법(大經大法)과 관련하여 그것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大哉聖人之道德元亨利貞大經大法道正天地數定天法理定心法正大光名仙佛儒大道正通…<sup>2)</sup>

위의 내용에서 논의된 성은 앞서 언급된 성의 기본적 입장을 그대로 보여 주면서 그것의 구체적인 원리를 확대해 나가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 2. 신 · 인감응(神人感應)의 매개로 나타나는 성(誠)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나타나는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명과 인간의 감통(感通)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誠)이 인간과 신명을 감통케

1) 대순지침 41면

2) 『典經』, 교운 2장 33절

하는 매개로 작용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먼저 『典經』의 내용을 토대로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자.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찌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와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 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sup>3)</sup>

위의 예문에 기초할 때 인간이 발휘하는 성심(誠心)은 신명(神明)과 감통을 이루는 중요한 바탕이 됨을 이해하게 된다. 참고로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신명은 인간에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sup>4)</sup> 존재이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으로 나타난다.<sup>5)</sup>

이러한 사실은 앞서 논의된 성이 만물을 존재하고 지배하는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즉 신명은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존재이면서 그것이 성심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심은 인욕(人慾)과 사(私)를 멀리하는 마음이며, 그것은 지공무사하고 편

3) 『典經』, 행록 1장 29절

4) 이와 관련한 내용은 『典經』, 교법 3장 1절·4절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典經』, 교법 3장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는 내용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벽됨이 없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즉 이러한 마음이 발현될 때 신명과의 감통을 이루게 되며, 나아가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종전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sup>6)</sup>

이처럼 대순사상에 나타는 성의 특성 중 하나는 인간이 지닌 성심이 신명에게 전달되어 신명과의 감통을 이끌어내며, 신인조화라는 특수한 결과를 창출하게 한다. 따라서 성의 실천은 수도에 있어서 신인조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자성(自誠)으로 이루워 놓은 나의 성탑(誠塔)은 남이 무너뜨린다 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신(神)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sup>7)</sup>

이와 같이 성(誠)은 신인조화를 이루며 나아가 도통 내지는 운수를 여는 수도의 요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참고로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도통’은 그것의 또 다른 표현방법으로 ‘운수’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수를 받는다고들 하나 그것 역시 도를 닦아 도통하는데 있느니라.<sup>8)</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심은 도통(운수)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먼저 이러한 사실을 『典經』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典經』; 교법 3장 24절

7) 『대순지침』, 41~42면

8) 『대순지침』, 38면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sup>9)</sup>

이처럼 성심과 운수는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으므로 성은 수도의 중요한 요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상제님을 일심으로 받드는 종교적 신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sup>10)</sup>

상제님을 몸과 마음을 통해 진실로 모시는 시천주(侍天主)의 실현은 수도의 궁극적 이상이면서 거기에 성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함께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성의 특성은 상제님에 대한 신앙으로 귀결되는 종교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앙을 통한 현실적 실천에 보다 깊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 Ⅲ. 敬에 대한 이해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경의 의미와 대순사상에서 주장되는 경의 의미를 『전경』과 『대순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대순사상 안에서 경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修道의 要諦로서의 敬

경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경(恭敬)과 삼가(愼)는 의미로 대별된다. 따라서 그것은 마음의 작용과 몸의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그와 관련한 종교적 특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수행의 훈전(訓典)인 것이며, 나아가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무자기(無自欺)와 상제에 대한 공경(恭敬)으로 집약됨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의 특성에 기초할 때 그것은 분명 종교적 특성을 지니는 수도의 요체가 됨

9) 『典經』, 교법 2장 37절

10) 『대순지침』, 51~52면

을 이해하게 된다.

요체(要諦)가 지니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점(an important point) 과 중요롭고 올바른 사리(secret)라고 할 때 수도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대요(大要)를 경이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경의 의미를 살피기에 앞서 수도가 지니는 의미와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수도의 정의와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精神)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sup>11)</sup>

위의 내용에 기초할 때 수도의 궁극적 의미는 시천주(侍天主)의 정신을 집중하여, 영통의 통일을 이루는데 그것을 공경과 정성을 다해 보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敬)은 수도의 목적인 영통의 통일을 이루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은 일상을 통해 그것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때 그것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일상을 통해 지속되어야 하는 경의 실현 방법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心身の動作을 받아 一身上 禮儀에 適中케 行勵하라.

마음과 정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이 예의에 알맞게 힘써 행하라

경의 실현과 보존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몸이 예의에 맞게 힘써 행할 때 실현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언급된 것처럼 퇴계는 경(敬)은 마음의 수양을 위해 안에서 다스리는 방법만이 아니라 바깥의 행동과 태도를 다스려 마음을 수습하는 방법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성품을 기르는 ‘함양(檻羊)’의 방법으로서, 그는 경을

11) 「대순진리회요람」 15~16쪽

실천함으로써 속으로는 깊고 두텁게 성품을 함양하고, 겉으로는 사람과 일에 응접할 때에 가볍게 지나치지 않을 것을 강조하여 속과 겉으로 경의 실천이 일관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을 『대순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心身)이 일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안팎으로 경의 실천을 계속해 가서 익숙하게 하면, 그 효과로서 스스로 자신을 잃음이 없게 되고, 사람과 대응하여 절도에 맞게 되는 표리(表裏)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마음의 중심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밖으로 모든 현상에 대응하면서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은 곧 표리(表裏)가 일치하는 경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성품의 본원(本原)을 함양하는 자리를 염두하고, 바깥으로는 생각을 깊이 정중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를 주장하는 것은 깨어 있는 때이다.”(平居無事 是涵養本原地頭 外儼若思 中心主一 惺惺然時也)고 언급함으로써, 경이 겉과 속을 일관시키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겉과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속이 서로 하나의 원리에 의해 일관되게 작용하는 관계가 경의 수양법의 근본정신이면서, 겉과 속 중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유교적 수양론의 기본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경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이라 하는 것이다<sup>12)</sup>

이처럼 경의 진정한 의미는 표리의 양면이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것이면서 그러한 마음을 지속하여 지성으로 봉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성봉축(至誠奉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제께 기원하는 것(祝賀)을 말한다. 따

12) 『대순지침』, 52쪽

라서 대순사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의 특성은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 상제님께 기원하는 마음과 몸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경의 실천은 일회적으로 성취되는 형식적 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단절이 없이 반복된 노력(眞積力久)을 통하여 점점 익숙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마침내 본체와 응용이 융화되고 순수한 상태가 되는 극치의 단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숙하게 함양(涵養)함을 근본으로 삼고, 깊이 침잠하여 연색(研索)함을 학문으로 삼을 것’(一以莊敬涵養爲本, 沈潛研索爲學)을 경의 실천방법으로 강조함으로써, 이 도리가 한순간도 자신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으로 친절하게 체인(體認)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이러한 수양법을 실천하는 지속적 과정으로서 “그 사이에서 노닐고 젖어서 점차 쌓여 오래가다 보면 홀연히 녹고 깨끗해지게 된다.”(得以優游涵泳於其間, 庶積漸悠久之餘, 忽然有融釋脫灑處)고 하며, 이러한 경지를 ‘참소식’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경이 몸과 마음을 단속하여 흠어지지 않게 하는 데서 시작하여, 마침내 도리와 일치하여 온전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경지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수양의 실천과정과 형성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수도의 궁극적 경지를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체인 경은 근원적으로 몸과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수도의 대상이 몸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볼 때 경은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그것의 완성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몸과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경의 특성을 『대순지침』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되는 법이다.<sup>13)</sup>

이와 같이 경의 실현과정과 원리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범위는 천·지·인 삼계(三界)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정(二程)을 비롯한 퇴계, 수운의 학문과 삶을 관통하는 중심개념은 ‘경(敬)’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경은 우리의 마음을 주재하는 중심으로서 교요

13) 『대순지침』, 52쪽

할 때(靜時) 존양(存養)하고 활동할 때(動時) 성찰(省察)함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붙잡아 주고 지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자(朱子)의 「敬齋箴」에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눈을 존엄하게 하며, 마음을 침잠하여 거처하면서 상제(上帝)를 마주 대하고 모시듯 하라.”(整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고 언급한 것처럼 경의 실천은 단정한 외모와 경건한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의 태도는 ‘정제엄숙(整齊嚴肅)’의 절도이며,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다른 일에 관심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주일무적(主一無敵)’의 자세이며, 마음을 거두어들여 항상 깨어 있도록 요구하는 ‘기심수렴(其心收斂)’ 내지 ‘상성성법(常惺惺法)’의 방법으로서 퇴계는 이러한 경의 실천방법을 통해 마음의 집중과 각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14)</sup>

## 2. 敬과 天·地·人 三界의 關係

앞서 언급된 것처럼 퇴계는 『성학십도(聖學十圖)』 속에 제 九圖로 수록한 주자의 「경재잠(敬齋箴)」에서는 경을 실천하는 행동의 모습으로 “발걸음은 무겁게 하고, 손짓은 공손하게 하며, 땅을 끌라 밟고 개미독에서 굽이 돌아가라. 문을 나가면 큰 손님을 맞듯이 하고 일을 받들면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라.”<sup>15)</sup> 고 제시한다 또한 「敬齋箴」에서는 한 마리의 개미도 밟지 않으려고 개미독을 돌아서 지나가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외경(畏敬)을 보여 주고 있다. 개미를 살아 움직이는 것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한다면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존중하고 외경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풀 한 포기에서도 우주의 원리를 통찰하는 퇴계의 눈에는 이미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경의 정신은 작계는 미물에서 크게는 온 천지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즉 미세한 것으로부터 한없이 크고 위대한 것에 이르는 공경(恭敬)의 정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

14) 敬의 핵심개념을 정의 하면서 程子は ‘整齊嚴肅’이라 하고, 朱子는 程伊川의 말을 끌어다 ‘主一無敵’이라 하였으며, 和靖 尹淳이 ‘其心收斂’이라 하고, 上蔡 謝良佐는 ‘常惺惺法’이라 제시하였다.

15) 주자, 「敬齋箴」, (『퇴계집』, 권 7, 31, ‘聖學十圖’), “足容必重, 手容必恭, 擇地而蹈, 折旋蟻封, 出門如賓, 承事如祭.”

한 경의 실천은 『전경』의 내용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자.

상제께서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후하시며 남달리 총명하셔서 못 사람들로 부터 경대를 받으셨도다. 어리실 때부터 나무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을 만큼 호생의 덕이 두터우셨도다.<sup>16)</sup>

위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경의 실현과 그 대상은 작은 미물로부터 위대하고 큰 것에까지 두루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경의 특징은 성·신(誠信)과 함께 천지와 관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경』을 통해 살펴보자.

…天地誠敬信… 17)

위의 『전경』 내용에서 천지와 성·경·신은 분명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면 천지와 성경신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전경』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天地之中央心也…18)

천지와 관련한 위의 『전경』의 내용에서는 마음과 천지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즉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라는 내용과 ‘천지는 성경신’ 이다라는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천지는 성경신과 마음이라는 양자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며,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음은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마음은 천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天用地用人用統制於心…19)

16) 『전경』, 행록 1장 11절.

17) 『典經』, 교운 1장 60절

18) 『전경』, 교운 1장 66절

천·지·인 삼계에 작용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주체가 마음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천지와 마음 그리고 성경신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과 경이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고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라면, 양자간에는 천지와 관련하여 함께 이해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북계(北溪) 진순(陳淳)은 “마음은 한 몸의 주재(主宰)이며,”(心者, 一身之主宰也) “경은 한마음의 주재요, 만사의 근본이다.”(敬者 一心之主宰, 萬事之根本)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경이 마음을 주재하고, 마음이 몸을 주재하는 관계 질서를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경은 마음이 분리되어 마음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은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응집시키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은 인간의 마음을 거두어 들이고 통제하는 마음 자체의 구심점(求心點)이며,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각 성시키고, 통일시키는 중심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퇴계는 “마음의 체(體)와 용(用)은 가슴에 가득 차고 우주에 두루 미친다.”(其體其用, 滿腔子而彌六合)고 언명함으로써, 마음의 응용이 무한함을 활간(活看)하도록 역설하였다. 이처럼 그는, 마음의 체(體)는 인간의 신체를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신체가 일정한 크기의 공간과 일정한 기간의 시간 속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비해 마음의 용(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주 속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마음과 신체의 차이를 대비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마음은 천지인 삼계에 작용하여 끊임없는 작용을 펼쳐나가는 것이라면 그러한 마음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성경신을 통해 천지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삼라만상과 더불어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天地 誠敬信’ 이란 문자 해석 그대로 천지는 성경신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즉 천지는 성경신을 그대로 닮은 존재이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故有道有理 天人一也 更不分別 浩然之氣 乃吾氣也 養而不害 則塞乎天地 一爲私心所蔽 則欲然而餒 知其小也 思無邪 無不敬 只此二句 循而行之 安得有差 有差者皆由不敬不正也…(도가 있고 리가 있는 곳에 자연과 인간(天人)은 하나이니 분별되지 않는다. 호연지기(浩然之氣)가 바로 나의 기이다. 그것을 배양하여 방해하지 않으면 온 천지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사심(私心)에 가려지면 꺼림하여 기가 죽게 되는데 자신이 좁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고(思無邪)” “언제 어디서나 경(敬)으로 일관한다(無不敬)”는 이 두 구절에 따라 실천한다면 어찌 어그러질 수 있겠는가? 어긋난 경우는 모두 경(敬)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때문이다.)<sup>20)</sup>

이러한 내용에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경은 사심(私心)과 사악함이 없으며, 언제나 경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삼감(愼)과 공경을 실현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천리의 극진함이 털끝 만한 인육의 사가 없나니라」 하셔도다.<sup>21)</sup>

이처럼 『전경』에서는 천지가 존재하고 움직여 나가는 근본원리인 천리(天理)는 인육이 없는 사무(私無)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경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특성과 부합하고 있는 것이며, 천지와 성경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성경신의 실현은 천도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지만 그것의 부재가 나타나면 천도와 인사는 상도를 잃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sup>22)</sup>

‘천도의 운행에는 차착이 없다.’는 말을 상기한다면 천도가 어겨지고 삼계의 질서가 무너짐은 결국 천지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정(不正)한 마

20) 『遺書』 卷, 2 上

21) 『전경』, 행록 2장 17절.

22) 『전경』, 교운 1장 9절

음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의 작용이 천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대순사상에 나타난 중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천지의 올바름은 성경신을 통해 나타나며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천도의 바탕에 만물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공경인 경(敬)이 숨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랑과 공경을 통해 작은 미물로부터 크게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을 살리고 존재케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는 마음(心)이 근원이 되는 것이며, 그 심은 천지의 주체이면서 경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를 통해 경을 실현시키는 것은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선천의 부정적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천의 현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도의 근원이 끊어진' 부정적인 세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한계상황을 벗어 던지고 올바른 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지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존재케 할 수 있는 성경신의 실현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성경신의 강조는 비단 인간에 국한되는 도덕적 규범의 강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실천이 천지와 관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경의 실현이 온 천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만물을 살리고 존재케 할 수 있다는 커다란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전경』의 내용을 살펴보자.

... 「경석은 성(誠)·경(敬)·신(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 고 하시고...23)

위의 『전경』 내용에서 성경신이 지극한 존재를 달리 쓰신다는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쓰임에 명확한 목적과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상제께서 요구하는 인간상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추론하면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실현하시고 그것의 완성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

23) 「전경」, 공사 2장 19절

건설을 목적으로 하셨다. 그러한 천지공사에 쓰임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름이 아닌 성경신을 갖춘 존재인 것이다. 천지공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천 선경이 천도와 인사의 상도(常道)가 바로 잡혀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세계라면, 그러한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경신의 실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후천선경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이면서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전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sup>24)</sup>

상제께서는 수명과 복록의 일치가 바람직한 것이면서, 그 중에서도 복록의 중함을 역설하고 계신다.<sup>25)</sup> 또한 수명도 복록과 함께 하는 것이므로 복록이 떨어지면 수명도 다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복록을 가져다 주는 주체가 상제이심을 밝히고 있다.<sup>26)</sup>

이러한 수명과 복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후천선경은 복록이 중시되는 사회이면서 그것의 양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sup>27)</sup>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즉 복록과 수명이 성경신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지기금지원위대강’을 이루어 수도의 궁극적 결과인 도통을 이루게 된다.

### 3. 恭敬의 對象으로서 上帝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경(敬)의 특징은 공경(恭敬)이란 표현을 통해 그 의

24) 『전경』, 교운 1장 3절

25) 『전경』, 교법 1장 16절.

26)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경』, 교법 2장 4절, 권지 1장 11절에 나타난다.

27) 『전경』, 권지 1장 11절

미를 밝히고 있다. 공경이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존경’<sup>28)</sup>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경의 대상과 주체는 상제에게로 집약되며 나타난다. 먼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大巡眞理會 要覽』을 통해 확인하여 보자.

항상 상제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29)</sup>

이러한 사실은 앞서 살핀 지성으로 봉축한다는 의미를 더욱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서, 대순사상에 나타난 경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경의 외형적 내면적 실천은 하나의 절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곧 “상제를 마주 대하고 모시듯 하라.”(對越上帝)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만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최종의 근원은 인간이 하늘과 마주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하늘을 망각하고 외면한다면 공경하는 외모와 경건한 마음가짐이 진실하게 확보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무자기와 관련한 내용이며, 성리학에서 인간의 성품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天命)이요, 천리(天理)임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인간존재의 본질이 하늘에서 근원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퇴계는 주자(朱子)가 말한 일거수 일투족에 이르기까지 순간 순간의 행동을 신중히 하고 공손하게 하는 경의 삶을 스스로 실천하였으며, 경으로 동시(動時)와 경시(靜時)를 관통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관통하기를 역설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지침』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有其心則有之 無其心則無之).” 하였으니, 도인들은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권권복옹(拳拳)

28)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동아출판사, 1996), 207쪽.

29) 『大巡眞理會 要覽』 15쪽

服膺)하여야 한다.<sup>30)</sup>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며, 그러한 이유로 정의로운 것이라 할 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변수가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위의 결과가 마음의 결정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비중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가 표현되는 과정에서는 마음의 결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대순지침』에서는 그 마음이 있으면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듯 사람의 행동의 결과와 원인은 그가 지닌 마음의 상태와 그것을 통해 투영되는 사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은 이러한 마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상제를 항상 마주 대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영원히 잃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늘 생각하여 잊지 않는 태도를 간직하여야 한다.

이렇듯 경은 대순사상에서 지성봉축(至誠奉祝)과 그것을 유지하려는 권권복응(拳拳服膺)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성경신을 갖춘 상제에 대한 지극한 공경을 상제를 지극히 신앙하는 지성봉축과 그 의미가 부합하는 것이면서 상제를 영원히 따르는 신앙의 핵심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영원한 복록을 누리는 것임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이렇듯 경의 실천은 수도의 궁극적 경지인 도통을 이루는 것이면서 신앙의 완성과 연결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수도의 가장 중요한 요체로 제시되는 경은 신앙과 수도의 완성이라는 양면의 궁극적 가치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 IV. 信에 관한 이해

이 장에서는 『典經』의 내용에 근거하여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信)의 특

30) 『대순지침』, 15쪽

성과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 1. 信의 概念

不受偏愛惡曰仁 不受全是全非曰義 不受專強便曰禮 不受恣聰恣明曰智 不受濫物濫欲曰信<sup>31)</sup>

위의 내용은 상제께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상(五常)의 개념을 설정한 것으로 그 중에서 신의 개념은 남물남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 요람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자.

한마음을 정(定)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便僻)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變)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通)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經過)하되 산하(山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目的)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sup>32)</sup>

위의 내용에 따르면 신이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정을 초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부동의 마음가짐 내지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2. 信의 特性

### 1) 자각(自覺)의 결과

일반적으로 신(信)은 신념(信念) 또는 신앙(信仰)과 관계된 것으로 인간의

31) 「典經」, 교법, 3장 46절

32) 대순진리회요람 16쪽

이성 내지는 정의적 요소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대상이다. 따라서 신(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념과 관계된 의미로 해석된다.

신념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접촉하는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감정·지각·인식·평가·동기·행동경향 등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세를 ‘태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신념은 그것의 인지적인 요소 및 측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신념은 다소간에 서로 관련을 가지고 전체로서의 체계를 이루나, 그 구조에서는 개인차가 있어 고도로 조직화되어 안정성 있는 신념체계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개개의 신념이 그다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

또한 신념은 객관적 사실 및 진실과의 일치에 있어 그 정도가 다양하여 때로는 객관적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 또는 일탈(逸脫)하는 수가 있다. 그 극단적인 예로서 속신(俗信)·미신·편견·고정관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sup>33)</sup>

위의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믿음(信)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각이란 일반적으로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이와 관련한 특성을 『典經』을 통해 살펴보자.

이듬해 봄 기후가 순조로와 보리농사가 잘 되어 풍년의 징조가 보이는 지라. 농부들과 김보경, 장홍해는 지난 가을에 상제께서 들판을 보시고 보리 농사가 실패될 것을 염려하시기에 보리 농사를 짓지 아니한 형벌을 비웃으니라. 이것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것은 신명공사에서 작정된 것인데 어찌 결실하기도 전에 농작을 예기할 수 있으리오” 하시고 종도들의 성급함을 탓하시니라. 오월 오일(五月五日)에 폭우가 쏟아지니라. 보리이삭에 병이 들어 이삭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결실이 되지 않는도다. 쌀값이 뛰고 보리 수확이 없게 되자 농부들이 상제의 말씀을 깨닫고 감

3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대순진리회 출판부, 1994), 53쪽. 이하 『대순지침』으로 표기함.

복하기만 하였도다.<sup>34)</sup>

위의 내용은 자각의 과정을 통해 상제를 향한 믿음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신명공사와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해 칠(七)월 이르러 쌀값이 더욱 뛰고 거기에 농작물 마저 심한 충재가 들어 인심이 더욱 사나와 지기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신축년부터 내가 일체의 천지공사를 맡았으니 금년에는 농작물이 잘 되리라.”고 이르셨도다.<sup>35)</sup>

위의 내용은 앞서 살핀 내용과 비교해볼 때 대조적인 상황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앞서 제시된 전경의 내용은 풍년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흉년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후반에 제시된 예문은 이와는 반대로 흉년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나 풍년이 있을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반대의 대조적 결과는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서 결정된 상황임을 일러주고 계신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면서부터 일체의 아표신(餓殍神)을 천상으로 몰아 올렸으니 이후에는 백성이 기근으로 죽는 일은 없으리라”고 하셨도다.<sup>36)</sup>

이러한 『典經』의 예문에서 믿음과 관련한 대순사상적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상제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예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상제께서 구릿골을 떠나 익산(益山)에 이르시고 그 곳에서 월여를 보내시다가 다시 회선동(會仙洞)에 이르시니라. 이 곳에 김보경(金甫京)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 외당에 상제께서 계셨도다. 이 때 그는 모친의 위독함을 상제께 아뢰니라. 이를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오늘밤은 명부사자(冥府使者)가 병실에 침입하여 나의 사자의 빈틈을

34) 『典經』, 권지, 1장 6절

35) 『典經』, 권지, 1장 7절

36) 『典經』, 권지, 1장 8절

타서 환자를 해할 것이니 병실을 비우지 말고 꼭 한 사람이 방을 지키면서 밤을 새우라] 하시니라. 보경이 이르심을 좇아 가족 한 사람씩 교대로 잠자지 않고 밤을 새우기로 하고 가족들을 단속하였느니라. 여러날이 계속되매 식구들이 졸음에 못 이겨 상제의 이르심을 잊어 갔도다. 이 날 밤 보경이 깨어 방을 지키다가 깜박 잠에 빠졌던 바 이 때 상제께서 외당에서 급히 소리쳐 부르시니라. 그가 놀라 깨어 보니 벌써 모친은 운명하여 있었도다. 상제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자는 바로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을 가리키신 것이로되 식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sup>37)</sup>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믿음과 자각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제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깨닫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더욱 더 보충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전경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 하셨으니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sup>38)</sup>

또 상제께서 “춘무인(春無仁)이면 추무의(秋無義)라.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 종자를 남겨 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 하셨도다.<sup>39)</sup>

## 2) 믿음의 주요대상

이 장에서는 믿음의 구체적 대상을 상제님의 말씀에 두고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대순사상의 믿음(信)이 지니는 특성을 파악해 보겠다.

상제께서 정미년 정월에 형렬에게 가라사대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이 역이로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 하셨도다.<sup>40)</sup>

37) 「典經」, 행록, 1장 34절

38) 「대순지침」, 53쪽

39) 「典經」, 교법 2장 45절

40) 「典經」, 교법 2장 1절

위의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상제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곧 믿음의 주요한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개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교조(敎祖)의 말씀과 언행이 신앙과 수행의 근간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종교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본이 되기도 한다. 즉 교조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가르침은 영원성을 지니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한 종교적 특성의 바탕에 늘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언행을 기록한 경전이다. 따라서 교조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그의 말은 항상 진리이며, 신앙의 또 다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또 다른 『典經』 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자.

대인의 말은 구천에 이르나니 또 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으라.<sup>41)</sup>

이처럼 상제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대인의 말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의 가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의 말씀은 신앙 내지는 믿음의 또 다른 대상이며, 동시에 신앙적 측면에서 합일적 가치와 동시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강조와 그것의 가치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먼저 그것을 살펴보자.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sup>42)</sup>

위의 사실에서 상제께서는 당신에 대한 믿음과 그것의 참다운 가치를 설명하고 계신다. 즉 상제께서 영원히 신도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계시는 존재이며, 그것의 가능성은 상제께서 일생을 통해 전달하신 가르침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41) 『典經』, 교법 2장 2절

42) 『典經』, 교법 2장 7절

### 3) 믿음(信)과 상제신앙의 특성

일반적으로 신앙이란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내지는 하느님의 섭리(攝理)에 대한 인간의 순종( 신뢰)이라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불(神佛)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신뢰와 무조건 복종을 말하며, 불확실한 것을 주관적으로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사람은 종교적 체험이나 의례(儀禮)를 되풀이함으로써 인격의 내부에 차츰 일정한 신앙적 자세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뚜렷이 자각하게 된다. 이 심적인 태도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인데, 신앙은 개인생활을 통일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편, 신앙의 표현인 신조·조직·제도를 가진 공동체의 생활을 통일하는 중심이 되기도 한다.

한편 신앙은 종교적 경험이나 그 밖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념 및 태도에 불과하다. 개인에게 있어 모든 신념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말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이다. 중심적인 것일수록 잘 변화하지 않으나 한 번 변화하면 다른 신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키치는 그 중요성 및 모든 신념체계의 결합도를 기준으로 신념을 5종류로 분류하였다.

- ① 100 %의 사회적 일치로 지지하는 근원적 신념,
- ② 개인적 경험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신념,
- ③ 저마다의 권위에 대한 신념,
- ④ 동일시되는 권위에서 나오는 신념,
- ⑤ 다소간 개인적 취미에 바탕을 두어 다른 신념과의 관련이 희박한 개별적 신념 등이 있다.

이처럼 신앙은 신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은 지성(知性)을 통하여 직접적인 경험이나, 타인의 경험에 의해 얻어진 지식의 범위 안에서 사물을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지식은 학문적 연구에 따라 무한히 변하면서 진보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의 확실성은 항상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충분히 검증(檢證)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하나의 가설(假說)로 인정되거나 주관적으로 완전하다고 긍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전적으로 지적(知的)인 근거에만 의거하여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심적 태도

가 신념이라는 것이다. 한편 신앙은 정의(情意)의 면까지를 기능적으로 통일 하면서 실존적 상황에서 생사를 걸고 초월적 존재와 전인격적(全人格的)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신념은 합리적 경험의 범주에 그치는 사고형식을 갖는데 비해, 신앙은 지(知)·정(情)·의(意)의 경험 전체에 관련될 뿐 아니라 경험을 초월한 영역에까지도 관련되기 때문에, 기성의 사고형식을 넘어선 새로운 것을 낳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과학이 진보하면 신앙은 불필요해진다 는 사고방식은 신앙과 신념을 혼동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신앙은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앙의 대상, 심적 태도의 특색, 사회나 문화의 상황에 따라 신앙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 인간형성의 과정에 있어서도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신앙은 변화한다. 특히 청년기에는 종교문제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입신(入信)이나 개종(改宗)이라는 회심(回心)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점차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신앙의 여러 형태로 구별되기도 하는데, 이상적인 종교적 인격을 갖춘 가치를 성자성(聖者性) 또는 성숙한 생산적 종교 정조(情操)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제께서는 화천하시기전 종도들에게 변함없는 믿음 내지는 신앙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와 관련한 『典經』의 구절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무신년 어느날 고부인에게 “내가 떠날지라도 그대는 변함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시니 부인이 대하여 어찌 변함이 있겠나이까”고 대답하였도다.<sup>43)</sup>

이 대답을 듣고 상제께서 글 한수를 지으셨도다.  
無語別時情若月 有期來處信通潮<sup>44)</sup>

위의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삶과 죽음을 떠난 믿음의 강조이다. 이는 상제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살필 수 있는 내용으로 종교체 내에서 신앙의 중요성과 그에 관련한 태도를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3) 『典經』, 행록, 4장 23절.

44) 『典經』, 행록, 4장 24절

앞서 논의된 것처럼 종교에서의 믿음은 대개 영원성을 지닌다. 즉 생사의 관계를 떠나 그것의 지속성이 발휘됨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특성은 내세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며 나타나는데, 대순사상에서는 내세적 요소보다는 상제의 재림(再臨)에 그것의 특성이 모아진다고 할 것이다. 상제께서는 『典經』의 여러 내용을 통해 재림의 약속을 강조하고 계신다. 따라서 상제에 대한 생사를 초월한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신(信)의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차 경석, 김 광찬, 황 응종을 앞에 세우고 공우에게 몽치를 들게 하고 윤경에게 칼을 들리고 “너희가 이 이후에도 지금의 스승을 모시고 있듯이 변함이 없겠느냐. 변함이 있으면 이 몽치로 더수구니를 칠 것이오. 이 칼로 배를 가를 것이니라.”고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시기도 하셨도다.<sup>45)</sup>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듯 나에게 추종하나 후일에는 눈을 떠서 바로 보지 못하리니 마음을 바로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라. 동학가사에 “많은 많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그러한가”와 같이 탄식줄이 저절로 나오리라.<sup>46)</sup>

#### 4) 신명(神明)에 대한 믿음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인간과 신명과의 조화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의 구체적 논의는 그간의 내용을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믿음과 신명과의 관계를 통해 대순사상에서 신(信)이 지니는 특성을 살핌조기로 하겠다. 먼저 『典經』의 내용을 통해 믿음과 신명과의 관련성을 밝혀보자.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公又)를 데리고 어디를 가실 때 공우에게 우산을 사서 들게 하셨도다. 공우는 상제께서는 원래 우산을 받는 일이 없었고 비록 비오는 날 길을 가실지라도 비가 몸에 범하는 일이 없었던 일을 생각하여 이상히 여기더니 뜻밖에 비가 오는도다. 상제께서 공우에게 우산을 받으라 하시니 공우는 상제께 받으시길 청하여 서로 사양하다가 함께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으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뒤로는 우

45) 『典經』, 행록 4장 41절

46) 『典經』, 교법 2장 9절

산을 들지 말라 의뢰심과 두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음호를 받지 못하나 나라.”고 하셨도다.<sup>47)</sup>

이는 신명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 글에 나타난 핵심요지는 신(信)에 대한 강조이다. 이처럼 신명의 보이지 않는 보호(保護) 즉 음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명에 대한 확신과 그를 통한 일심의 견지(堅持)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사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는 기초가 신인조화(神人調化)에 있다고 할 때 신명과의 조화와 음호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신(信)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지침』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

성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믿음은 의심을 버리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자각의 과정을 통한 확신의 결과임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논의된 것처럼 인간과 신명과의 조화를 통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의 방법임을 감안한다면 신명과의 조화적 관계를 이루기 위한 일차적 작업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 5) 믿음과 생·사(生死)의 관계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믿음과 관련한 또 다른 특성은 그것이 생사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와 관련한 사실을 『典經』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자.

김 자현은 유(六)월 어느날 상제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화액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이 말씀을

47) 『典經』, 행록 4장 40절

듣고 자현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고 여주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르셨도다.<sup>48)</sup>

너희들은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sup>49)</sup>

상제에 대한 믿음의 결과는 분명 생과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논의되는 죽음은 단순히 일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논의된 것처럼 상제를 믿고 따르는 것의 궁극적 모습은 상제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된다. 그리고 그것의 확인은 위의 내용에서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는 내용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듯 상제님의 말씀을 따르고 항시 잊지 않는 “시천주”의 강조는 생사와 관련한 믿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순사상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 6) 천지공사(天地公事)에 나타난 믿음(信)의 특성

이 장에서는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서 인간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어 그것의 내용을 통해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을 확인하는데 있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 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48) 「典經」, 행록 5장 19절

49) 「典經」, 교법 1장 5절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sup>50)</sup>

위의 내용은 천지공사의 특성과 그 안에서 믿음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외 없이 믿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데, 천지공사는 대순사상에서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기초적인 원리이며, 방법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는 상제님의 말씀은 천지공사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며, 이러한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참고로 천지공사에서는 인간의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사의 방법으로 대두된다. 그리고 상제께서는 공사에 참여했던 종도들에게 항상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사실을 내용을 통해 그것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무신년 칠(七)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우금암(遇金岩) 아래에 있는 개암사(開岩寺)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앉히고 성냥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水國)이 될지니라. 개벽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sup>51)</sup>

위의 내용은 천지공사의 결과인 후천개벽(後天開闢)과 그에 따른 상제님의 당부와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천지공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천개벽에 대한 믿음과 그것의 확신을 종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믿음과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개벽은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며, 그 때를 어기게 되면 천지에 재앙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그 때가 설령 멀어 기다리기가 조금할 지라도 개벽에 대한 확

50) 『典經』, 공사 1장 2절

51) 『典經』, 공사 2장 27절

신을 갖고 그것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천지공사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며, 현실을 살아가는 신도들에게 믿음과 후천개벽의 관계를 다시금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할 것이다.

## 7) 믿음과 해인(海印)의 관계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믿음과 관련한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해인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해인은 일반적으로 “부처의 슬기”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해인의 획득은 결국 도통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典經』을 통해 나타나는 해인의 특성을 살펴보자.

형렬이 명을 좇아 육십사(六十四)괘를 타점하고 이십사(二十四)방위를 써서 올렸더니 상제께서 그 종이를 가지고 문밖에 나가셔서 태양을 향하여 불사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지내자” 하시고 형렬을 돌아보며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가져다 주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52)</sup>

위의 사실에 근거하면 상제에 대한 믿음은 해인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그러면 대순사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해인의 의미를 살펴보자.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진인(海島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sup>53)</sup>

위의 내용에서 도주께서 밝히신 해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물건이 아닌 자신의 장중(掌中)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52) 『典經』, 교운 1장 62절

53) 『典經』, 교운 2장 55절

반증하는 것으로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 많은 종도들은 각기 교단을 창립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통인패”와 같은 호신부를 제작하여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보급한 일이 있다. 따라서 도주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염려하여 진정한 해인은 물건이 아닌 자신의 장중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해인을 얻기 위한 일차적 조건은 상제님에 대한 믿음이다.

대순진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문의 하나인 기도주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 至 願爲大降”이다. 이런 상제님을 모시면 조화가 정해지고 영세토록 잊지 않고 믿음을 견지한다면 만사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결과는 만사지로 나타나며 이는 불타의 슬기와 그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만사를 알게되는 반야의 지혜가 해인이라면 이는 결국 상제님에 대한 변함없는 일심의 결과로 획득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믿음의 결과와 가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sup>54)</sup>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돈우기에 마음을 쏟아 탄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 덕림을 하루 속히 기다리며 운수가 조아들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sup>55)</sup>

## 8) 믿음의 방법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믿음을 이루는 구체적 과정 내지는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믿기를 활을 다루듯이 하라. 활을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어지나니 진듯이 당겨야 하느니라.<sup>56)</sup>

54) 「典經」, 교법 2장 7절

55) 「典經」, 교법 2장 8절

56) 「典經」, 교법 2장 35절

위의 내용에서는 믿음을 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결론은 성급함을 멀리하고 점진적인 자세를 통해 궁극의 목표를 달성함을 강조하고 계신다. 일반적으로 성급한 믿음은 맹신 또는 광신으로 나타난다.

광신의 비극은 역사상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상제께서는 광신과 맹신을 멀리한 순리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러한 강조는 다음의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상제께서 경석에게 가르치시기를 “모든 일이 욱속부달(欲速不達)이다. 사람 기르기가 누에 기르기와 같으니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느니라.” 57)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다. 58)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 59)

## 9) 믿음의 결과와 자아대성(自我大成)

이장에서는 믿음이 자아를 이루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신의 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그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典經』 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자.

하루는 상제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탕자의 일에 비유하시니라. “옛날에 어떤 탕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방탕하여 보낸 허송 세월을 회과 자책하여 내 일생을 어떻게 헛되게 보내어 후세에 남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 지금부터라도 신선을 만나서 선학을 배우겠노라고 개심하니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심신이 상패하여 지더니 돌연히 하늘에 올라가 신선 한 분을 만나니라. 그 신선이 네가 이제 늙우쳐 선학을 뜻하니 심히 가상하도다.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치리니 정결한 곳에 도장을 짓고 여러 동지를 모으라고 이르니라. 방탕자는 그 신선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방탕을 알고 따르지 않는지라. 겨우 몇 사람만의 응락을 받고 이들과 함께 도장을 차렸던 바 갑자기 천상으로부터 채운이 찬란하고 선악소리

57) 『典經』, 교법 2장 34절

58) 『대순지침』, 53쪽

59) 위의 책, 같은 곳

가 들리더니 그 신선이 나타나서 선학을 가르쳤도다.”<sup>60)</sup>

위의 예문에 제시된 내용은 일차적으로 믿음과 관련하여 그것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먼저 상제님의 일은 탕자의 비유처럼 일반인들이 좀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과천선의 마음은 신선(神仙)이 될 수 있는 선학(仙學)을 배울 수 있는 바탕이 됨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수도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 선학을 배워 자아의 완성을 이루는 결과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믿음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典經』의 다른 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 날의 일을 밝히시니라. “최풍헌(崔風憲)이라는 고흥(高興) 사람은 류훈장(柳訓長)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헌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 고 물었느니라. 류훈장이 기꺼이 응락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류훈장은 아예 모르는 체 하더니 하루는 최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헌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이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고 물으니 그 아들이 “류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지리산(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이 유언을 듣고 류훈장은 풍헌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의논하니 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좇는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 쪽을 바라보니 최풍헌이라. 모두들 반겨 좇아 올라가니 그 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풍헌을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 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 <sup>61)</sup>

60) 『典經』, 교법 3장 16절

61) 『典經』, 교법 3장 17절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盡心)갈력(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 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 내리니 뜻밖에도 오색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 62)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여동빈(呂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 값은 천냥이로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 오니 승천하였느니라.] 63)

이와 같은 예문의 내용은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그것의 실천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대순사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면서, 믿음이 자아대성의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도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도주께서 통사동(通士洞) 재실에서 어느날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 (吾道者今不聞 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앞에 모으고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상생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여 도(道)를 밝혀주셨도다. 64)

이처럼 대순사상은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예전에도 듣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 만큼 믿고 따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간직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믿음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의 실현은 자아대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62) 『典經』, 예시 83절

63) 『典經』, 예시 61절

64) 『典經』, 교운 2장 18절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sup>65)</sup>

## V. 성 · 경 · 신에 관한 이해

이 장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성경신의 상호 관련성과 그것의 공통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삼요체가 지니는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典經』의 내용에서 성경신이 지니는 특성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상제께서는 친히 지으신 오주(五呪)의 내용을 공개하시면서, 그것이 천지의 진액임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러면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정미년 선달 스무 사흘에 신 경수를 그의 집에서 찾으시니라. 상제께서 요(堯)의 역상일월성진경수인시(曆像日月星辰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일월무사치만물(日月無私治萬物) 강산유도수백행(江山有道受百行)을 가르치고 오주(五呪)를 지어 천지의 진액(津液)이라 이름하시니 그 오주는 이러하도다.

新天地家家長世 日月日月萬事知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  
明德觀音八陰八陽 至氣今至願爲大降  
三界解魔大帝神位願趁天尊關聖帝君<sup>66)</sup>

위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오주의 내용에서 성경신은 복록 수명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며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복록과 수명은 인간의 생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조건이다. 그러면 복록 수명과 관련한 또 다른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자.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

65) 「대순지침」, 53쪽

66) 「典經」, 교운, 1장 30절

고 수명만 길면 그것 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니 녹이 떨어지면 죽나니라.<sup>67)</sup>

이처럼 상제께서는 복록 수명을 강조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녹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녹은 인간의 수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즉 자신의 녹은 자신의 생명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며 인간은 자신이 지은 녹만큼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신인 것이며, 성경신은 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판단도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성경신은 분명 생사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동시에 해원상생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의 『典經』 내용은 그 의미를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浩浩道主奉命明明度數無私至公引導乎無量極樂五萬年清華之世肅我道友嚴我道友極誠極敬至信至德難求之欲虛過一世之冤至干斯而豈不解冤哉喜吾道友勸哉勉哉<sup>68)</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넓고 넓은 도주께서는 밝고 밝은 도수를 반들고 무사지공하게 우리를 무량극락오만년 청화세계로 인도한다. 엄숙하라 나의 도우들이여 정성과 공경과 지극한 믿음을 다하라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하기 어려워 일세를 헛되히 보낸 그 원을 여기에 이르러 어찌 해원하지 못하리요 기뻐하라 나의 도우들이여 힘쓸지어다. 라는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근원적 원리가 여기에서도 역시 성경신을 다함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성경신은 대순사상의 핵심사상인 해원상생의 실천의 바탕이 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67) 『典經』, 교법 1장 16절

68) 『典經』, 교운 2장 41절

분명 성경신은 천지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그러한 직접적 사실을 『典經』을 통해 확인해보자.

…宙宇壽命 至氣今至願爲大降 天地誠敬信…<sup>69)</sup>

먼저 위의 내용에서 우주(宇宙)가 거꾸로 주우(宙宇)로 표기된 것은 후천의 시·공간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는 후천세계에서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므로 공간적 특징보다는 시간적 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은 천지와 관련하여 성경신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천지가 성경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앞서 성경신의 논의와 그것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천지를 이루어나가고 존재케 하는 가장 주요한 원리가 성경신임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수양이 성경신을 통해 완성을 이루게 되면 천지와 합일을 이루는 극치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 장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IV. 맺음말

일상 생활을 통해 성경신을 실천하는 방법은 포덕·교화·수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성경신은 궁극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포덕·교화·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sup>70)</sup>

‘일심’과 성경신에 바탕을 둔 수행에 있어 성경신은 그것의 가장 궁극적이고 모범적인 노선(路線)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수행은 성경신의 패도를 따라 진행하니, ‘성’은 심신을 다하여 일심을 견수하고 간단(間斷)과 강약의 도(度)가 없게 하는 것이요, ‘경’은 일심을 수시로 반성하여 자만함이 불급

69) 『典經』, 교운 1장 66절

70) 『대순지침』, 같은 곳

(不及)을 계(戒)하는 것이요, '신'은 필승의 신념을 확립하여 의력을 발양하는 것이다. 또 성경신이 외계로 표출될 때 행의(行儀)를 제율(宰律)하는 것이니, '마음 속이지 않음'과 '척짚지 않음'은 성의 표출이고, '언덕을 바르게 함'과 '남 잘되게 함'은 경의 표출이며, 시보상성(施報相成)은 신의 표출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 훈회가 그것들의 내적 동인으로서의 성·경·신을 항상 보강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또한 성·경·신은 '일심'을 보장하는 것이다. 요컨대 '일심'이 지속되어 어느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다섯 규범에 성격합화를 얻어 안심안심과 경천수도의 경지를 완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성경신이 지니는 본질적 가치와 의의는 근원과 심성이라는 두 축을 하나의 원리로 연결하여 삶의 바탕과 인격의 완성을 통해 원리와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살아있는 가치를 드높인다는데 있다.

또한 그것의 범위가 천·지·인 삼계(三界)에 작용하여 크게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인간과 인간사이의 적중한 예절 관계를 가르치는 성경신과 인간과 초월적 대상의 관계에 나타나는 지성봉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신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한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경신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특성은 성경신의 궁극적 실천과 그 대상이 상제에 대한 대월영시(對越永侍)의 마음과 시천주(侍天主)로 이어지는 특성에 있다.

수도의 궁극적 경지라고 할 수 있는 시천주의 정신과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요체로 나타나는 성경신의 관계는 대순사상에서 주장되는 수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양과 신앙을 하나로 연결하여 결국은 수도의 완성과 신앙의 완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특징을 전달하고 있으면서 도통을 통해 천지와 하나를 이루고 그 정신을 함양하여 천지를 바로 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성경신의 정신을 꽃피우고 있다.

【참고문헌】

大巡眞理會 敎務部, 『典經』,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指針』,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眞理會 要覽』,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東京大典』

『龍潭遺詞』

『論語』

『孟子』

『禮記』

『孝經』

『國語』

『說文』

『呂氏孝行』

『程氏易傳』

『遺書』

『新編』

『退溪先生言行通錄』

『退溪集』

『栗谷集』

『朱熹集』

『東京大典』

『용담유사』

張岱年 著, 金白熙 譯, 『中國哲學大綱』 上·下, (서울: 까치글방, 1998)

馮友蘭 著, 朴星奎 譯, 『중국철학사』 上·下, (서울: 까치글방, 1999)